

④ 호법 Hobeop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답④

6. 다음 중 음운의 개수가 가장 많은 단어를 고르시오. <아름다운국어 40쪽 집중탐구 문제>

- ① 소화기
- ② 인화성
- ③ 안전모
- ④ 방열복

지름길]

말소리에서는 '문자'와 '소리'를 구분해야 하는데, 가령 한 단어에서 음운의 개수를 헤아리는 경우 발음되는 소리에 의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국어의 음운은 총 40개이며, 이 중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단모음 10개, 이중 모음 11개)이다. 첫째 초성의 'ㅇ'은 음운 수에서 제외하고, 둘째 종성의 'ㅇ'은 음운 수에 포함되며, 셋째 된소리도 하나의 음운으로 다루며, 넷째 이중 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 다룬다.

④ 방열복-8개

① 소화기-6개 ② 인화성-7개 ③ 안전모-7개

답④

7. 다음 보기 중 어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국어 특강 II 14번 문제> <아름다운국어 특강 I 16번 문제> <아름다운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9회 2번 문제> <아름다운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0회 14번 문제>

- ① 소녀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다 - '드렸다'는 주체 높임법이다.
- ② 선생님은 딸이 계시다 - '계시다'에서 '있으시다'로 바꾼다.
- ③ 기한이 되시면 맞춰주세요. - '되시면'을 '되면'으로 바꾼다.
- ④ 저희 나라는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로 바꾼다.

지름길]

① '드렸다'라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는 주체 높임 중 간접 높임에 해당된다.

③ '되시면'의 주체는 '기한이'가 된다. 주체 높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국가'의 경우는 '저희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를 사용한다. ('저희'는 '우리'를 낮춘 말로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겸양의 뜻을 나타낼 때 쓴다. 그러나, '저희 나라', '저희 민족', '저희 국가' 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 이 경우에 '저희'를 사용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과 아울러 그 사람이 속한 나라, 민족, 국가도 낮추어지므로. 자기 나라를 낮추는 것은 지나친 겸손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단, '저희 가족'을 할아버지나 다른 높은 친척 앞에서 쓸 수는 있다.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이다.)

답①

8. 다음 보기를 읽고 설명이 가리키는 것을 고르시오. <아름다운국어 831쪽 응용>

<지문 미 복원>

- ① 비석치기
- ② 연날리기
- ③ 고무줄놀이
- ④ 딱지치기

지름길]

답 ②

9. 다음 문장의 밑줄 친 것을 수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국어 특강 I 56번 문제> <아름다운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0회 2번 문제> <아름다운국어 3월 문제반 3회 2번 문제> <아름다운국어 3월 문제반 5회 5번 문제>

- 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아침이다. → '한 해'는 띄어 쓴다.
- ② 그의 바람대로 소방 공무원이 되었다. → '바람'으로 고친다.
- ③ 년초에는 인사로 바쁜 일이 많다. → 두음법칙에 따라 '연초'로 쓴다.
- ④ 그가 무엇을 할 지 알 수 없다. → '할지'는 붙여 쓴다.

지름길]

② '바람'이 표준어이다.

답 ②

10. 다음 보기 안에 밑줄 친 의미와 다른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아름다운국어 688쪽>

밑줄은 재난은 발생한 뒤 수습하기가 어렵다는 내용 <지문 미 복원>

- ① 실마치구(失馬治厩)
-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지름길]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쓰는 말.

① 실마치구(失馬治厩): 말을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으로, 실패한 뒤에 손을 쓴다는 말.

③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서 우리를 고친다.

④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죽은 후에 약 처방을 한다.

답②

11. 다음 보기의 빈 칸에 알맞은 것은? <아름다운국어 302쪽> <아름다운국어 3월 문제반 8회 11번 문제>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그 무서시라 웨논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 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으스스 흥논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이라 흥렘은.

- ① 게
- ② 거복이
- ③ 자라
- ④ 문어

지름길]

현대어 여러 사람들이여, 동난것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랴 외치느냐? 사자. 밝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기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스하는 동난것 사오. 장수야, 그렇게 장황하게(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지이라 하려무나.

답①

12. 수사 의문문이 아닌 것은? <아름다운국어 113쪽> <아름다운국어 2월 문제반 23번 문제>

- ① 이 고장 특산물이 무엇인가요?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①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다.
- ③ 어조 변화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④ 밝음과 어둠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다.

지름길]

③ 어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고통스럽고 암울해도 푸른 산이 하늘을 향해 있듯이 자신도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삶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① 푸른색의 색채어 반복을 통해 화자 정서를 고조했다.
- ② '산'은 현실의 세계, '하늘'과 '별'은 이상의 세계 혹은 초월의 세계를 상징한다.
- ④ 푸른 별, 푸른 하늘의 밝음의 이미지와 저문 들길의 어둠의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긍정적, 미래지향적
- ▶심상: 비유적, 시각적 심상
- ▶어조: 독백적, 대체로 직설적 어조
- ▶제재: 저물녘의 들길
- ▶주제: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현실의 고난에 대한 긍정적 인식)
- ▶특징:

- ① 대립적인 심상의 대조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킴.
- ②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삶의 자세와 의지를 드러냄.

답③

16. 다음을 읽고 밑줄 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국어 257쪽> <아름다운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1회 17번 문제 유사>

①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하고. 넷 사람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②至樂(지락)을 므를 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③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난 夕陽裏(석양리)에 뛰여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헌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④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이 다를소냐. - 정극인 <상춘곡>

- ① '紅塵(홍진)'과 '數間茅屋(수간모옥)'은 대조되는 뜻이다.
- ② '至樂(지락)'에 대한 자부심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이 내 生涯(생애)'는 화자의 지향 대상이다.
- ④ 넷 사람의 생애를 감각적인 시어로 구체화 하였다.

지름길]

- ① '紅塵(홍진)'은 속세를 '數間茅屋(수간모옥)'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의미한다.
- ② '(자연과 벗하여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는 것일까?'의 의미로 자부심이 나타나 있다.
- ③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는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조되는 인물로 '風月主人(풍월 주인)'은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다.

현대어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을 따를까 못 따를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나만한 사람이 많긴마는 산림에 묻혀 (자연과 벗하여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는 것일까? 두어 간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우거진 숲속에 자연의 주인이 되었도다. 엇그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은 저녁 놀 속에 피어 있고, 버드나무와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해 냈는가, 붓으로 그려 냈는가? 조물주의 신비로운 창조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레 나타나 있구나.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의 흥겨움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부리는 모습이로구나. 자연과 내가 하나이니 흥이야 다르겠는가?

답④

17. 다음 중 속담과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름다운국어 440쪽 내용 참고>

- ① 굵은 나무 선산 지킨다. -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할 일을 한다.
- ② 못 먹는 버섯이 3월에 난다. -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일찍 나돌아 다닌다.
- ③ 봄별은 며느리가 맞게 하고 가을별은 딸에게 맞게 한다. -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보다 더 예뻐한다.
- ④ 거문고 인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 처지도 못 되는 이가 남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며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름길]

③ 가을별보다 봄별이 더 살갓이 타고 거칠어지므로 며느리보다 딸을 더 생각한다는 말.

답③

18. 다음 자료를 읽고 조선시대 상속에 대해 알 수 없는 내용은? <아름다운국어 831쪽 응용>

조선시대 상속에 대한 지문<지문 미 복원>

- ① 조선에는 재산 내용에 관한 기본 법전이 있었다.
- ② 고려시대에는 재산이 많은 여성이 있었다.
- ③ 첩의 자식에게도 공평하게 재산 분배를 하였다.
- ④ 재산 분배에 있어 유일한 차별은 장례를 지내는 자녀에 관한 것이다.

지름길]

답③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과자요 떠돌이 신세인 응철은 추수 때에 송이 파적이나 하는 만무방이다. 깊은 산골 어느 가을날, 시장기를 느껴 송이를 먹던 응철은 고기

생각이 나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닭을 잡아먹는다. 숲에서 나온 응칠은 성팔이를 만나 응오네 논의 벼를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성팔이를 의심한다.

응칠이도 5년 전에는 처자식이 있던 성실한 농군이였다. 빗을 갚을 방법이 없어 한밤중에 도망을 나와 구걸로 연명하다가 아내의 제안으로 헤어진 뒤부터 절도와 도박 등으로 살아가다가 감옥까지 드나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동기간이 그리워 아우 응오네 동네로 들어오게 된 것이 한 달 전이다.

응오는 순박하고 성실한 모범 농군이였지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장리쌀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도리어 빚만 늘어가게 되자 올해는 벼를 베지 않고 있었다.

병을 앓아 송장 같은 아내에게 약을 달여 먹이던 응오는 응칠을 보자 아내를 위해 산치성 드릴 것을 의논해 온다. 이런 상황에서 베지도 않은 논의 벼를 도둑맞자 전과자인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것을 예상한 응칠은 오늘 밤 도둑을 잡은 후 마을 을 떠나가기로 결심 한다.

산길을 오르다 바위 굴 속에서 노름판을 발견한 응칠은 노름판에 잠시 끼었다가 서낭당 앞 돌에 앉아 덜덜 떨며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한다. 닭이 세 해를 울때, 복면을 한 그림자가 나타나 벼를 훔치는 것을 보자, 응칠은 격투 끈에 도둑을 잡아 복면 을 벗기고 망연자실한다. 범인을 다름 아닌 응오였던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응칠은 황소를 훔치고자 응오를 달랬지만, 부질없다는 듯 형의 손을 뿌리 치고 달아나는 응오를 몽둥이질로 쓰러뜨린다. 응칠은 한숨을 쉬며 응오를 업고 고개를 내려온다. - 김유정 <만무방>

19. 이 글에서 응오의 신분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

- ① 소작농
- ② 자작농
- ③ 지주
- ④ 아전

지름길]

응오: 진실하고 모범적인 소작농. 자신이 가꾼 벼를 자기가 도적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함.

응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박과 절도로 일확천금의 허화한 꿈을 꾸는 인물

성팔, 기호, 용구, 머슴, 상투쟁이: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농촌을 떠나려는 소작농들.

<핵심정리>

▶갈래: 단편소설

▶배경: 1930년대 가을, 강원도 산골 마을

▶성격: 반어적

반어적 상황 설정: 응오가 자신이 애써 가꾼 벼를 자기가 오히려 도적질해야 하는 눈물겨운 상황. (모범적인 농군을 반사회적 인물로 몰고 간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 일 년 농사를 짓고도 남는 것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뿐이라는 인식은 당시의 소작농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상황의 가혹함과 그 피해상.

▶표현상 특징: 등장인물의 독백을 서술하여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답①

20. 응오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속담을 고르시오.<아름다운국어 440쪽 내용 참고>

- ① 자는 범 코침 놓다.
- ② 나간 놈 집구석이다.
- ③ 가는 손님 뒤꼭지 예쁘다.
- ④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지름길]

④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남 좋은 일을 한다.

“응오는 순박하고 성실한 모범 농군이였지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장리쌀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도리어 빚만 늘어가게 되자”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① 자는 범 코침 놓다.: 내버려두면 아무 일 없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화를 입게 된다.

② 나간 놈 집구석이다.: 집 안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가는 손님 뒤꼭지 예쁘다.: 손님 대접하기가 어려운 터에 손님이 속을 알아주어 빨리 돌아가니 고맙게 여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답④